

색지와 색가구를 통해 본 취학전 아동의 색채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

Color Preference of Preschool Children for the Paper and for Furniture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조교수 이연숙
연구조교 이의준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Yeun Sook Lee**
Research Assistant; **Eui Joon Lee**

<목 차>	
I. 서론	IV. 결과논의 및 결론
II. 문헌고찰	V. 제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color concept development in preschool children, 2) general color preferences using colored papers, 3) specific color preference using colored chairs, and 4)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of sex and age to general color preference.

The present experiment with materials developed through the pilot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70 3, 4, and 5-year-old children attending the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of Yonsei University as subjects. Data were analyzed with SAS package using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C^2 and visualized by SAS graph with Tektronix 4113.

The major findings were:

- 1) For each color, the degree of perceived color experience and color discrimination was determined.
- 2) Using colored papers, red, yellow red, yellow, pink, purple and red purple were liked while black, sapphire, van dyke brown and olive drab disliked.
- 3) Using colored chairs, red, pink, yellow, red purple, yellow red and purple were most liked while black, van dyke brown, sapphire and natural wood color most disliked.
- 4) Age differences of color preferences were found in two colors while sex differences were found in seven colors.

I. 서 론

색이란 시지각 현상의 일종으로서 빛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합으로써 생기는 주관적 감각이며(김성애, 1981), 많은 사람들이 대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디자인의 요소이다(Chambers와 Moulton, 1969)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물이나 현상은 색채를 하나의 속성으로 지니고 있으며, 이 환경속에서 나타나는 색채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능력의 발달과도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임재택, 1980).

이러한 색채학의 분야는 광범위하여 물리학이나 화학, 생리학, 심리학 및 심리물리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심리학적인 분야에서는 각 개인이 받는 심적인 색채반응으로서의 색선호에 관심을 가져 1894년 Cohn의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양하여 색선호 자체를 부정하는 측면과 그 존재를 인정하는 측면으로 크게 분류되며 후자의 경우에도 색의 선호경향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어 색선호에 어떠한 체계가 있다는 측과 색선호는 완전히 개인의 취향에 따른다는 측으로 나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색선호에는 체계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체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험도구상의 문제, 실험상황의 차이, 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결과는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비교가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오면서 색선호에 관한 연구는 부진한 상태를 보여 색의 중요성이 인지되어 오던 정도에 비하면 색선호체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족하여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대개 일반적인 색선호경향이 밝혀지면, 그것은 곧 실제분야에 지침이 되어 사용되므로 일반적 색선호와 실제물건에 나타나는 색선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색선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이 색지를 통한 일반적 색선호에 관한 것으로서 많은

아동이 기본 원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를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물품이나 환경에 적용할 수는 없다. 예를들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아동이라하여 아주 작은 장난감에서부터 가구나 실내공간의 벽장식에 까지 이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는 물건의 크기 및 채색되는 면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적효과에 관한 문제는 실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업자나 디자이너들에 의해 인지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색지를 통해 밝혀진 일반적인 색선호가 어떤 규모에까지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많은 의문에 비교해 볼때 전무한 상태이다. 더우기 실제 선호를 포함한 색의 효과가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체계화시키는 연구는 몇번의 실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것에 접근하는 초기단계의 한 연구로서 “의자”라는 특정규모의 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의자는 사람이 앉는다는 기능을 지시해 주어야 하는 기본적 가구로서 시대와 특수목적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갖는 규모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구의 색선호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색지를 통해 나타난 일반적 색선호가 얼마만큼의 예측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색채개념발달 및 색선호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방법상에서도 한계점이 많아 실험도구로서 사용되는 색의 범위는 대개 기본색(원색)이나 밝은색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색선호가 아는 범위내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색에 대해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참작할 때 실험도구의 폭을 넓혀 다양한 색을 제시하여 선호색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색개념발달에 관한 연구는 임재택(1980)의 연구를 중심으로 불과 몇편, 아동의 색선호에 관련된 것은 박돈서(1982), 김인수(1970)의 논문외에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 색선호경향과 구체적 사물에 나타난 색선호경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공성은의 6인(1978)의 연구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학적 현상을 정립해야 하는 교육계뿐 아니라

실제 아동에 관련된다는 제품을 생산하는 측에 더욱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가능한 한 다양한 색의 범위내에서 취학전 아동의 색지각에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 1) 아동의 색채개념 발달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색선호경향을 파악한다.
- 3) 실제가구에 나타난 색선호경향을 파악한다.
- 4) 각색의 선호정도를 연령별, 성별로 그 차이를 규명한다.

II. 문헌고찰

본 연구의 문헌조사는 색선호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색선호 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선행연구방법 등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요약 정리하였으며, 그 필요성 및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색선호에 관한 연구들은 각 연구에 따라 실험도구 및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 그것들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전 연구결과의 흐름을 자세히 검토하므로써 결과의 신뢰성, 일관성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두는 것이 색선호 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것에 관한 문헌만을 집중검토하여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색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이들 결과속에서 취학전 아동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틀을 얻는데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성 방법으로는 색선호연구 시초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색선호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와 색선호의 체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하였다.

둘째, 색선호에 관한 연구는 최근 몇십년간 부진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색선호

를 위한 방법론이 과거의 재래식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한점을 비교적 크게 인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선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선호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어떻게 연구의 방법들이 조직되어 행해졌는가를 검토하여 존재해 왔던 방법의 종류 및 그 특성들을 파악하므로써 과거에 있어왔던 제한점을 본 연구에서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상의 부분들은 최대한로 활용하여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기저로 삼고자 하였다. 그 구성방법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고찰한 후 이전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자료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색선호에 관한 선행연구

색선호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는 그 시초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Dorcus(1926)와 같이 선호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 Marsden(1930)처럼 선호존재를 지지하는 측 및 존재를 가정하고 선호체제를 진행한 학자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색선호가 취학전 아동에게도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토록 하였다.

색선호의 체계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색선호가 개인의 기호변화 특성이나 새롭게 출현하는 색의 영향으로 일관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측과 색선호는 여러가지 변인에 따라 체계적인 변화를 한다는 측이 있으며, 후자측에 나타난 중요변인으로는 연령, 성별, 색의 삼속성 등이 있다. 연령변인에 대해 Reavis(1920), Birren(1961), 김인수(1970), 박돈서(1982) 등은 아동의 선호색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색에서 한색으로 변화하며, 대개의 아동은 간색, 재간색보다는 원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변인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어 성별에 따라 선호색에 차이가 없다는 Garth와 2인(1938)의 연구도 있지만 그와 상반되는 견해를 보인 Jastrow(1897), Choungorian(1968), 박돈서(1982)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은 파랑과 같은 한색계를 여성은 빨강이나 노랑과 같은 난색계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의 삼속성에 의한 색선호 경향은 다양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향을 논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색선호경향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다.

2. 색선호 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선행 연구방법

지금까지 색선호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들은 다양하며, 이를 연구자료별로 범주화하여 보면 색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색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실제 물건색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를 다시 실험도구로 사용되는 색표본의 제시방법에 따라 비교할 색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쌍으로 제시하는 방법,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색이름을 사용하여 선호색을 조사하는 방법은 색표본의 제시방법에 따라 색이름을 쌍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Chou와 Chen(1934), Shen(1934), Winch(1909)등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색카드나 실제물건의 색을 사용할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색카드를 연속적으로 제시했을 경우에 생기는 색의 대비효과나 실험에 사용할 특정색 선정에서 오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색이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명도나 채도를 가진 색을 상상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진다.

색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색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쌍으로 제시하는 방법,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등이 있다. 색을 연속적으로 제시한 연구로는 Major(1895), Washburn(1911), Norris(1911)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접하여 제시되는 색이 서로 대조를 이루어 그색 본래의 느낌을 변화시키게 되며, 실험진행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므로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 색을 수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색을 쌍으로 제시한 연구는 Aars(1899), Dorcus(1926), Bradbury(1934), Choungorian(1968)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학령전 아동들이 새롭게 출현하는 색에 대해 느끼는 호기심은 색선호의 일관성을 보이는 데 저해요인이 된다. 색을 동시에 제시하여 실험한 연구로는 Cohn(1900), Michaels(1924), Garth(1922)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택할 색을 한눈에 다 보게 되므로 비교관점이 더 정확하고,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 물건색을 사용하는 방법은 색이 있는 물건을 쌍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McDougall(1908), Shin(1907), May와 May(1981) 등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사용되는 물건의 선정시 그 크기나 형태를 통제하여 가의변인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야 하며, 제작비용이나 실험진행상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정사물에 대한 정확한 선호색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실제물건이나 환경의 색채계획에 응용하는데 문제가 비교적 적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방법들의 장단점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도구로서 색지와 색가구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제시방법은 연속적 제시방법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실험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본조사에서 실험도구로 사용되는 색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학교 1학년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초실험도구로 쓰인 40가지색의 선택방법을 보면, 한국공업규격의 색이름중 기본색 13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색상을 면셀색판과 비교한 후 일본 DIC Color Guide 제10판에서 실제 색지를 선택하였으며, 중간색은 한국공업규격 색이름의 관용색명중 27가지색을 선택한 후 이에 해당하는 색상을 Maerz와 Paul(1930)의 "A Dictionary of Color"에서 찾고 이와 가능한 한 유사한 색지를 일본 DIC Color Guide 제10판에서 선택하였다. 또한 아동의

색경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크레파스중 다양한 색이 있는 36색 크레파스를 선택하여 색선정에 참고로 사용하였다.

위의 예비조사 결과를 중점으로 하여 본조사를 위한 실험도구로는 24가지색이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 실험자가 육안으로 보아 비슷한 색을 같은 계열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먼셀 색입체와 비교하여 명도, 채도의 차가 큰 색을 분리시켰으며, 같은 계열이라도 한국공업규격의 기본색은 분리시켰다. 또한 예비조사결과 유사한 색명이나 수식어만을 변화시켜 표현한 색들을 함께 묶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실험도구를 본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실험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로 실시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985년 4월 7일에서 21일까지 중류이상 가정의 아동들이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연세대학교 부설 어린이 생활지도연구원의 3~5세 아동 70명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실험을 실시하였다.

1) 1차실험

1차실험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24가지의 색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색개념발달정도와 일반적 색선호경향을 조사하였다. 색개념발달정도는 두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우선 24가지 색지를 하나씩 보여주고 본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색경험정도를 조사하였고, 본적이 있는 색에 대해 그 이름을 답하게 하여 맞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로서 판별정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 색선호경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 즉, 24가지색 각각에 대해 좋다, 그저그렇다, 싫다로서 답하게 한 선호정도에 의한 방법과 24색중 선호색과 혐오색을 각각 순서대로 3가지씩 고르도록 한 순위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 2차실험

2차실험에서는 1차실험에서 사용된 색지와 거의 동일하게 채색된 24가지색의 의자와 마감페인팅을 하지 않은 원테 나무색 의자를 첨가시킨 25가지의 색가구를 제시하고 선호색과 혐오색을 각각 순서대로 3가지씩 고르도록 하여 가구에 대한 색선호

경향을 조사하였다.

3) 자료처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AS package를 사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 χ^2 -test, C³ 등을 이용하였으며, 색선호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키기 위해 Tektronix 4113으로 SAS graph를 그렸다.

IV. 결과논의 및 결론

본 연구목적에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입한 대상은 연세대학교 부설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에 다니는 70명의 아동으로 남자 34명(48.6%), 여자 36명(51.4%)이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3~4세가 41명(58.6%), 5세가 29명(41.4%)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목적에 따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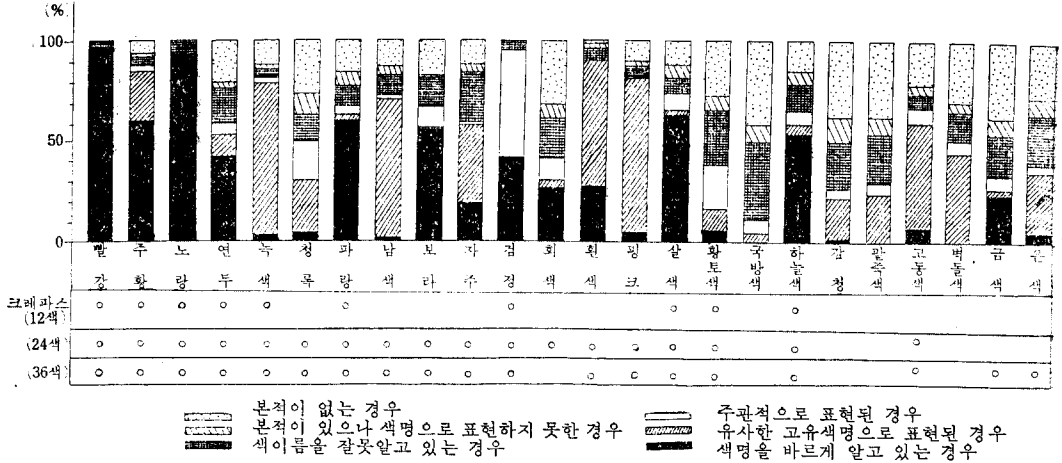
1. 아동의 색채개념발달 정도

연구목적 1)은 아동의 색개념발달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색경험정도와 판별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색경험정도를 보면, 제시된 24색 각각에 대해 아동들의 58.0% 이상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들의 색경험정도 및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남색, 보라, 자주, 검정, 흰색, 핑크, 살색, 하늘색 등의 13가지색은 경험정도가 8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경험정도가 70.0%이하로 비교적 낮은색은 국방색, 팔죽색, 감청, 금색, 회색, 벽돌색등이었다. 또한 색판별정도가 75.0% 이상되는 색은 빨강, 검정, 노랑, 흰색, 주황, 핑크, 녹색 등의 7가지색이었으며, 30.0% 이하로 낮은 색은 국방색, 황토색, 은색, 팔죽색, 자주, 금색, 회색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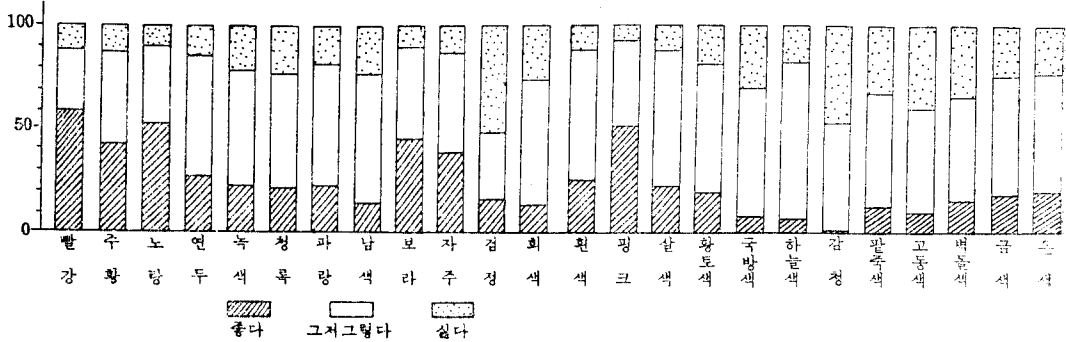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색경험정도 및 판별정도는 아동들의 색지각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크레파스 색의 종류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즉, 많은 아동들이 본 경험이 있거나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색은 크레파스에 나타나 있는 색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색개념 발달정도



[그림 1] 색개념 발달 정도(N=70)

선호정도 (%)



[그림 2] 일반적 색선호 정도(N=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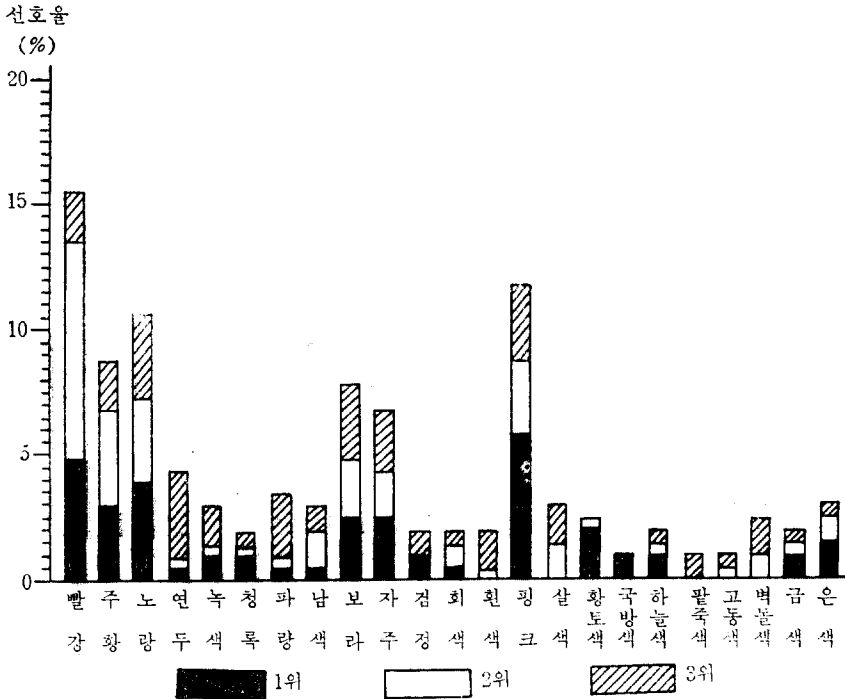
2. 일반적 색선호 경향

연구목적 2)를 위해서는 선호정도와 선호, 혐오 순위에 의해 일반적 색선호경향을 조사한 결과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으며, 두 경우에 그 경향이 거의 일치하였다. 아동들의 선호색은 빨강, 핑크, 주황, 노랑, 보라, 자주등의 주로 난색계와 중성색계로서 이전 연구에서 언급된 난색선호경향을 지지해 주고 있었으며, 핑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순색에 가까운 색들로서 채도가 낮은색보다 순색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삼원색중에서는 빨강과 노랑만이 나타나고 그외에는 간색 및 재간색이 선호색으로 출현하므로써 원색이 간색이나 재간색보다 더 선호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또한 아동들의 혐오색은 검정, 감청, 고동색, 국방색등으로 검정을 제외하면 명도와 채도가 5이하인 어둡고 탁한 색들이었다.

이상의 연구목적 1)과 2)의 내용을 연관지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색판별정도가 75.0% 이상으로 높은색은 빨강, 주황, 노랑, 녹색, 검정, 흰색, 핑크등의 7가지색으로 그중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아동의 선호색은



[그림 3] 일반적 선호색의 순위(N=70)

빨강, 주황, 노랑, 핑크등이었고, 혐오색은 검정만의 포함되어져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요인이 싫어하는 요인보다 아동의 색개념발달에 더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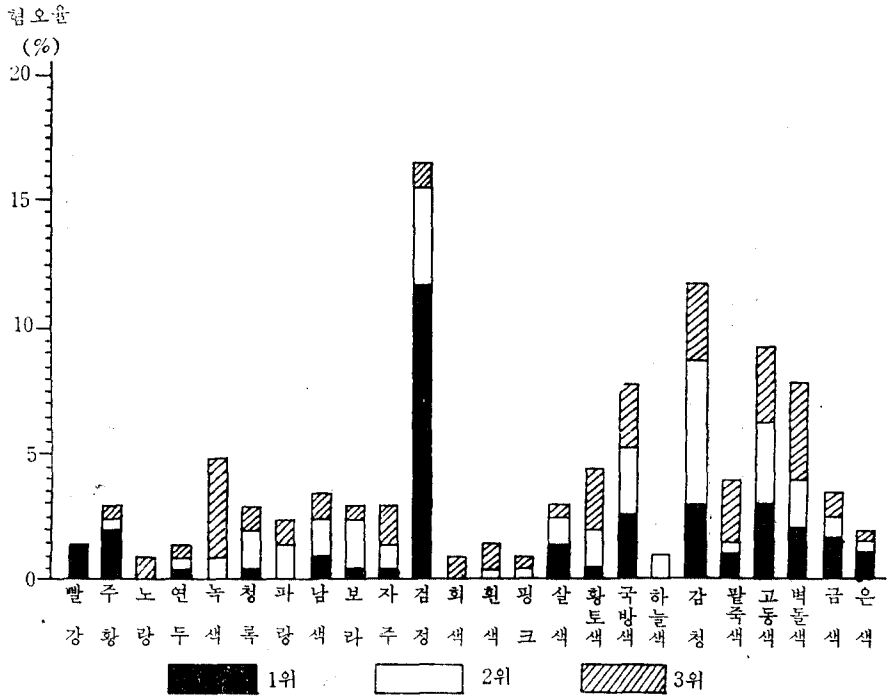
일반적 선호색과 혐오색으로 제시된 색들을 그 판별정도에 따라 비교하면 일반적 선호색인 6가지 색의 판별정도는 빨강, 주황, 노랑, 핑크가 75.0% 이상이었으며, 보라와 자주는 60.0%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혐오색의 판별정도는 검정이 95.7%, 고동색이 60.0% 정도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30.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모르는 색보다 아는 색중에서 선호색을 택하게 되는 현상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3. 가구에 나타난 색선호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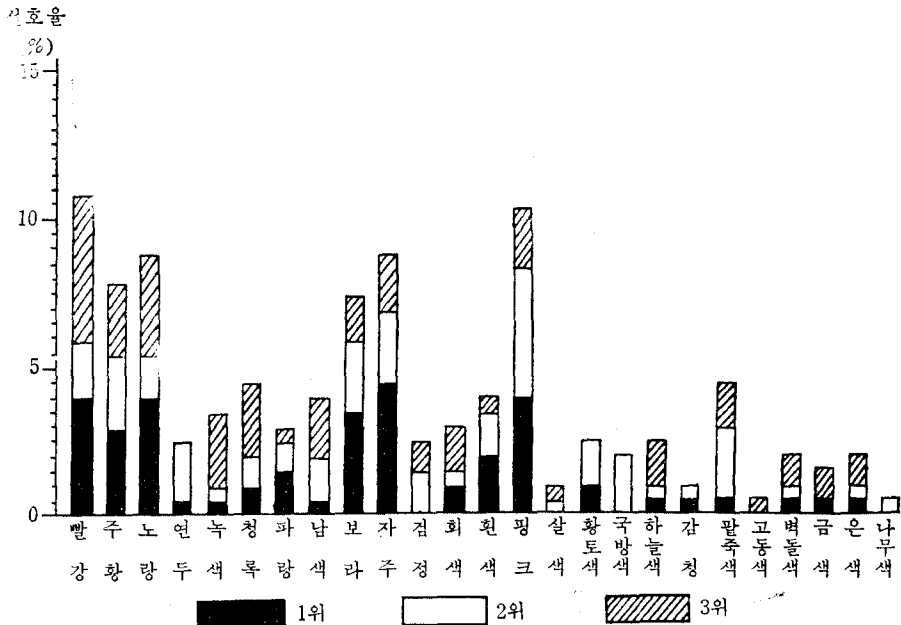
연구목적 3)을 위하여 가구의 색선호 경향을 조

사한 결과는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선호색은 빨강, 핑크, 노랑, 주황, 보라로 나타났고, 혐오색은 검정, 고동색, 감청, 나무색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나무색에 대한 혐오현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나무색이 대표적 목재의 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아동들이 원래의 자연 목재색을 무조건 좋아하리라고 가정하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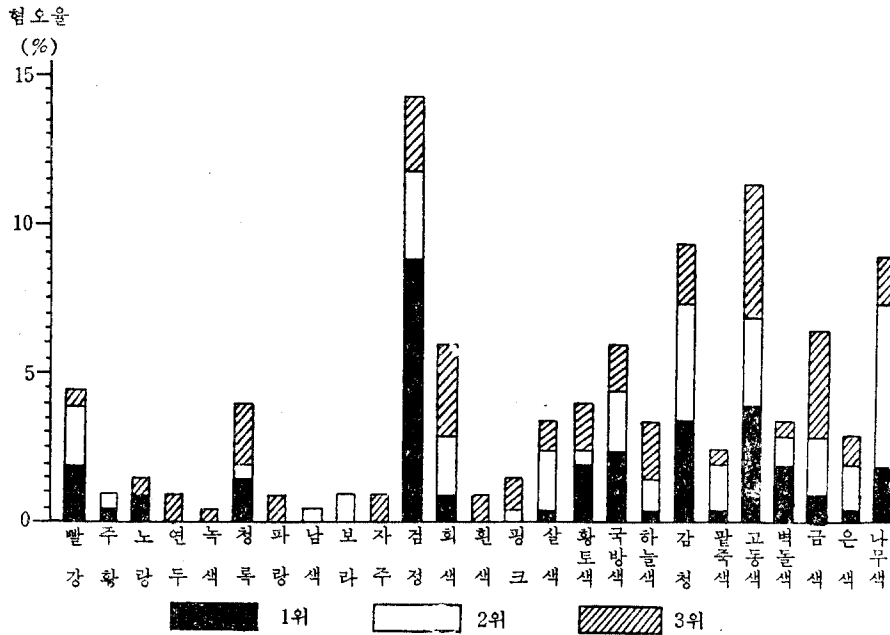
이러한 가구를 통해 조사된 색선호경향을 연구목적 2)의 일반적 색선호경향과 비교해 보면, <표 1>과 <표 2>와 같다. 아동들이 선택한 선호색이나 혐오색의 순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색들의 종류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한 의자와 같은 물건의 색채계획을 할 경우에 색지를 통해 조사된 일반적 색선호경향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음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림 4] 일반적 혐오색의 순위 (N=70)



[그림 5] 실제 가구에 나타난 선호색의 순위 (N=70)



[그림 6] 실제가구에 나타난 혐오색의 순위(N=70)

<표 1> 색지와 색가구를 통해 나타난 선호색의 순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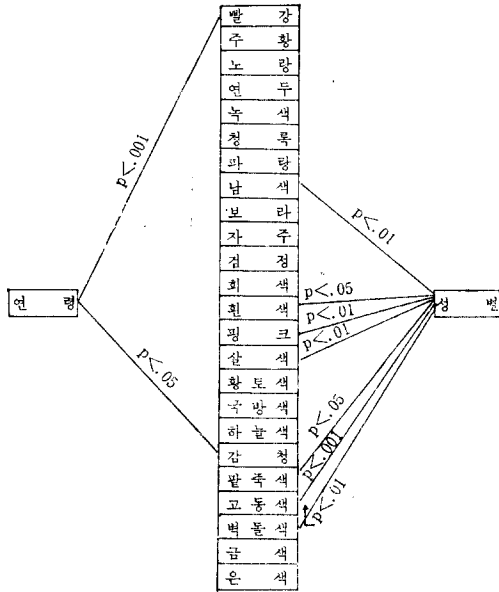
N=70

선호순위	1	2	3	4	5	6
실험도구별 색지를 통해 나타난 반적 선호색	빨강	강	핑크	노랑	주황	보라
선호율 (%)	15.53	11.65	10.68	8.74	7.77	6.80
색가구를 통해 나타난 선호색	빨강	강	핑크	노랑	자주	주황
선호율 (%)	10.78	10.29		8.82	7.84	7.35

<표 2> 색지와 색가구를 통해 나타난 혐오색의 순위비교

N=70

혐오순위	1	2	3	4	5	6
실험도구별 색지를 통해 나타난 반적 혐오색	검정	검정	고동색	국방색	벽돌색	황토색
혐오율 (%)	16.50	11.65	9.22		7.77	4.37
색가구를 통해 나타난 혐오색	검정	고동색	감청	나무색	회색	국방색
혐오율 (%)	14.29	11.33	9.36	8.87		5.91



[그림 7]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각각의 색에 대한 색선호 경향에 대한 검증결과 도식

4.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반적 색선호 경향

연구목적 3)과 관련된 가설로서 각 색에 대한 선호정도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색은 24색중 선호색의 하나였던 빨강과 혐오색의 하나였던 갈색이었다.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색은 24색중 선호정도가 높은 핑크, 중간정도인 남색, 황색, 살색 그리고 선호정도가 비교적 낮은 팔죽색, 벽돌색 등이었으며, 특히 남자는 여자보다 남색, 벽돌색, 팔죽색, 고동색등의 명도가 낮은 색이나 흰색과 같이 아주 명도가 높은 색을 선호하였고, 여자는 남자보다 핑크나 살색같은 비교적 명도가 높고 채도가 순색보다 낮아진 색들을 더 선호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취학전 아동의 색선호경향은 연령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색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 연령보다는 성별에 따라 색선호정도의 경향이 더 민감하

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가 인지되어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실험도구의 수적인 문제로서 사용하는 색을 기본색에 한정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중한 과정을 거쳐 선택한 24가지 종류의 다양한 색을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비록 명도, 채도가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았지만 선호경향과 색의 속성간의 관련성을 암시해 줄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일반적 색선호경향과 물건색을 통한 색선호경향의 관련성을 보고자 했던 의도는 이러한 문제가 널리 언급되었던 정도에 비해 한국에서는 첫시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개의 실험연구가 제한된 실험상황에서 그 내용을 충실히 하는 내적 타당도는 고려할 수 있으나 한번의 연구에서는 그 외적 타당도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연구가 반복 계속되므로써 그 공신력이 증대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미래의 연구를 위해 대표적인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가능한 한 같은 연구를 색측정기(color meter)를 통해 선택된 색을 사용하여 실시하므로써 공통된 결과는 재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단일색과 함께 색조화에 대한 학문적 실 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령과 성별뿐만 아니라 색선호 경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연령의 증가에 따른 색선호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른 여러 형태의 의자를 사용하여 연구를 반복하므로써 일정한 크기의 의자라는 항목이 가질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색선호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인수, 「기호색에 대한 조사연구—아동, 교대생
현직교사 중심—」, *안동교육대학논집*, 제 5집
1972.
- _____, 「아동 기호색에 관한 조사 연구」, *안동교
육대학논집*, 제 3집, 1970.
- 김종훈, 「어린이 말 연구」, 서울:개문사, 1975.
- 박도양, 「실용색채학」, 서울:이우출판사, 1982.
- 박돈서, 「우리나라 국민학교 아동의 색채반응에 관
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지*, 제26권, 108호,
1982.
- _____, 「우리나라 국민학교 아동의 색채반응에 관
한 연구(2)」, *대한건축학회지*, 제27권, 111호
1984.
- 윤일주, 「색채학 입문」, 서울:민음사, 1974.
- 한국공업규격(KS A 0011)
- Bradbury, Hinton, "Consistency of Inconsistent
Preferences Attributable to Novelty," *Dev-
elopmental Psychology*, 11, 1, 1975, 76-86.
- Chou, Siegen K. and Han Piao Chen, "General
versus Specific Color Preferences of Chin-
es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
gy*, 6, 1935, 290-314.
- Choungorian, A., "Color Preferences: A Cross-
Cultural and Cross-Sectional Study," *Per-
ceptual and Motor Skills*, 28, 1969, 801~
802.
- Dorcus, R.M., "Color Preferences and Color
Associations," *Pedagogical Seminary an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33, 1926.
- Eysenck, H.J., "A Crit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Color Preferences," *American Jo-
urnal of Psychology*, 54, 1941, 385-394.
- Garth, T.R., Kunihei Ikeda, and Roy, M. Lang-
don, "The Color Preferences of Japanes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931, 397-402.
- _____, Mathilde R. Mases, and Corrine N.
Anthony, "The Color Preferences of East
Ind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1, 1938, 709-713.
- Granger, "An Experimental Study of Color
Preferences," *Journal of General Psychol-
ogy*, 1955, 3-21.
- Guilford, J.P., "The Affective Value of Color
as a Function of Hue, Tint, and Chroma,"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7,
1974.
- _____, "There is System in Color Preference,"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30, 1940, 455-459.
- Maerz, A. and M. Rea Paul, *A Dictionary of
Color*, McGraw-Hill Book Co., 1930.
- Munsell, A.H., *A Color Notation*, Munsell Color
Co., 1981.